

마에다 가문의 지보: 손케이카쿠 문고

이시카와현립미술관 내에 있는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에서는 마에다 가문이 수집한 고서적, 고문서, 갑옷, 진바오리, 그림 등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손케이카쿠 문고’ 중에서 엄선한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손케이카쿠 문고 자체는 도쿄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에다 가문은 역사적으로 가나자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중 약 400 점의 미술공예품에 대해 소장 및 전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손케이카쿠 문고에는 국보 22 점과 중요문화재 77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일 가문 소장품으로는 경이적인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은 마에다 가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손케이카쿠 문고의 소장품 대부분은 그 제 3 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1594~1658)와 그의 손자인 제 5 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에서는 ‘손케이카쿠 문고’의 소장품을 매월 교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품에는 마에다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갑옷과 투구, 가가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등자(안장 양옆에 매달아 발을 걸 수 있는 도구), 차 도구, 산수화, 서예작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드물지만, 희귀한 공예 표본 소장품인 ‘햏코히쇼’가 전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 가문이 자랑하던 명품들을 최상의 보존상태로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